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3. 28.(목)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 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하기를 요청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라며,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1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태환 (044-202-2404)



☐ **일 시:** '24. 3. 28.(목) 16:30~17:30

☐ **장 소:** 서울 시티타워 2층 비즈허브 211호

☐ **참석자**

- (정부) 장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여성소비자연합 김영주 부회장

☐ **논의안건**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 관련 소비자 단체 의견수렴

☐ **진행순서(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30~16:35	'5	모두 말씀	장관
16:35~17:25	'50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 관련 의견수렴	소비자단체 대표
17:25~17:30	'5	마무리 말씀	장관